

전염병·여진 공포...카트만두 엑소더스 확산

〈Exodus : 대규모 탈출〉

20만명 이상 빠져나가

버스 부족해 경찰·시민 충돌도

UN, 지진피해자 800만명 추산

최근 지진이 강타한 네팔 카트만두에서 주민 20여만명이 도시를 탈출했다고 교도통신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경찰의 말을 빌려 카트만두를 빠져나간 주민이 23만5000여명이라고 전했다. 지진 이튿날인 26일에 8만3000명, 27일 오전부터 28일 오전 사이에 15만 3000여명이 카트만두를 떠났다. 지진이 발생한 지난 25일 당일엔 현지에서 떠난 이들의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다.

여진에 따른 추가 피해, 열악한 생활 조건, 전염병 창궐 우려, 무질서, 치안불안 등이 탈출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경찰관 제이 바하두르 찬드는 “곧 전염병이 퍼지고 음식과 식수도 동남 것이라는 소문이 카트만두에 확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국 신문 가디언에 따르면 네팔 당국은 이날 10만명이 이미 카트만두를 빠져나갔다고 밝혔다. 한 공무원은 이날까지 그 규모가 카트만두 인구의 10분의 1인 30만명에 이를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카트만두의 주요 고속도로에서는 평소보다 10배나 많은 버스 300여대가 승객을 가득 채우고 나가는 모습이 관측됐다. AFP통신에 따르면 카트만두의 주요 버스 터미널에서는 귀향하려는 주민들과 경찰의 물리적 충돌까지 벌어졌다.

버스가 부족해 소요가 일어나자 네팔 정부는 경찰력을 동원해 주민들을 진압했



네팔 대지진 당시 카트만두의 무너진 아파트 단지 잔해 속에 매몰된 리쉬 카날(28·사진 가운데)이 28일(현지시간) 프랑스 구조팀에 의해 구조돼 건물 밖으로 옮겨지고 있다. 카날은 사고 이후 82시간만에 구조됐다. /연합뉴스

다. AFP통신은 네팔 당국이 버스를 충분히 배치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를 지키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키소르 카브르(25)는 “새벽부터 기다렸는데 오키로 한 버스 250대가 하나도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고향으로 빨리 가서 가족들이 무사한지 봐야 하지만 버스는 올 생각을 하지 않는다”며 “정부가 재난을 수습할 여력이 부족한 것 같다”고 덧

붙였다. 카트만두에서는 지진으로 집을 잃거나 건물의 추가 붕괴를 우려해 여전히 주민 수십만 명이 노숙하고 있다.

AFP통신은 이날 카트만두에서는 더딘 구호에 불만을 품은 주민 200여명이 교통을 방해하며 시위를 벌였다고 보도했다. 시위대는 경찰과 작은 충돌을 빚었으나 체포된 이들은 없었다. 한 시위자는 “배가 고프고 마실 물도 없으며 잠도 잘 수 없다”

며 “우리 7살 아이는 노숙하고 있고 날씨가 추워 사람들이 폐렴에 걸리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같은 불만에 미렌드라 리팔 네팔 통신 부장은 “전례 없는 규모의 재해여서 구호 작업에 일부 허점이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유엔은 이번 지진으로 피해를 본 이들이 8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연합뉴스

김정은에 말대꾸 했다간 본보기 처형...공포정치 지속

국정원 국회 정보위 보고

넉달간 고위직 15명 처형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올해 들어서만 15명의 고위 관리를 처형하는 등 공포·강압정치를 하고 있다고 국가정보원이 29일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정은은 이유가 통하지 않고 무조건 관철을 시키는 통치 스타일을 보이고, 이권을 제시하면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해 본보기 처형으로 대응한다”면서 “올해 들어서만 넉 달 동안 15명의 고위 관계자들이 처형됐다”고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이철우·새정치민주연합 신경민 의원이 전했다.

국정원은 차관급인 임업성 부상도 산림 녹화 정책에 불만을 토로했다는 이유로 지난 1월 처형됐으며, 이는 본보기 시범 사례였다고 설명했다.

또 같은 차관급인 국가계획위원회 부위원장은 대동강변에 건설 중인 과학기술전당의 지붕 모양을 ‘똥’ 형태로 설계했는데, 김 위원장이 이를 ‘김일성화 꽃 모양’으로 바꾸라고 지시하자 시공이 어렵고 공기도 연장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가 지난 2월 처형됐다.

지난 3월에는 음란 동영상 추문에 휘말렸던 은하수 관현악단의 총감독을 비롯한 관계자 4명도 간첩 혐의로 총살됐다고 국정원은 밝혔다.

국정원은 특히 북한에서는 공개처형을 통해 공포정치를 하고 있다며 “사람들을

모여라 해놓고 공개적으로 기관포를 발사(해 처형)하기까지 한다”고 전했다. 국정원에 따르면 김 위원장이 처형한 고위 관리자는 2012년 17명, 2013년 10명, 지난해 41명으로 집계됐다.

천안함 폭침의 배후이자 소니엔터테인먼트 해킹사건의 배후로 알려진 김영철 정찰총장은 이날 들어 대장 계급에서 상장으로 강등됐다고 국정원은 보고했다. 김 총장은 지난 3년간 대장에서 중장으로 강등됐다 다시 대장으로 진급하는 등 계급이 네 차례나 바뀌었다.

국정원은 또 김정은 위원장이 다음 달 러시아를 방문할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했다.

현재 러시아 호텔 예약 상황을 점검한 결과 아직 김 위원장이 예약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지만, 주러시아 북한대사관에도 숙식 시설이 잘 갖춰져 호텔 예약은 중요하지 않아 보인다는 게 국정원의 설명이다.

국정원은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이 다음 달 출산할 것으로 추정했으며, 남편은 김일성 대학 동기생일 것으로 추측했다.

이와 함께 국정원은 북한의 사이버 해킹 조직이 7개에서 6개(직원 1천700명)로 1개 감소한 반면, 관련 지원 조직은 13개(4200명)에서 17개(5천100명)로 4개 늘었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이철우 의원은 “IT 인력이 고급인력인데, 여기(지원조직)에 근무하면 중국, 베트남, 라오스 등 외국에 가서 근무할 수 있어 선호 대상”이라며 “외국에서 근무하면 2천~5천 달러를 받는데, 2천 달러는 무조건 정부에 상납해야 한다. 외화벌이 수단으로 IT 해킹 기술을 삼는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미·일 정상 공동성명 ‘新 밀월시대’ 일 군사적 행동 확대·재무장 길 터

한국, 역사 퇴행적 행보 우려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일본은 28일(현지시간) 정상 회담을 열어 새로운 방위협력지점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조기 체결을 통해 양국의 안보·경제협력을 격상하고 글로벌 도전 과제에 대처하기 위한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특히 아시아 역내에서 중국의 패권확장 기도를 견제하려는 듯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는 한편 동맹의 격상을 통해 일본이 군사적 행동을 확대하고 재무장을 강화하는 길을 닦았다.

그러나 이러한 양국 정상의 합의는 아베 신조 총리가 과거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위안부 등 전시인권 문제 등에 대해 사과한 역대 정부의 입장을 계승하지 않고, 평화헌법을 교묘히 무력화하는 등 역사 퇴행적 행보를 보이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한국 등 주변국의 우려를 사기에 충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날 오전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일본 총리가 미국을 공식 방문해 정상 회담을 한 것은 2006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 이후 9년 만이다.

오바마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공동성명에서 “오늘 회담은 미·일 파트너십을 전향해나가는 역사적인 결실을 상징한다”며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과 일본의 ‘적극적 평화 기여’ 정책을 통해 우

리는 지역과 세계의 평화롭고 번영된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미·일 새 방위협력지점과 관련해서는 “동맹을 변화시키고 역지력을 강화하며 장기적인 안보과제 해결을 보장할 것”이라며 “특히 동맹 안에서 각각의 역할과 임무를 격상하고 일본이 지역과 국제 안보에 대한 기여를 확대해 가도록 만들 것”이라고 평가했다.

양국 정상은 또 “21세기 두 나라의 안전과 번영은 서로 긴밀히 얽혀 있고 분리될 수 없으며 국경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공동으로 대처해야 할 글로벌 과제로 기후변화와 환경악화,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빈곤 근절, 인간안보 증진, 극단적 폭력주의 대처, 비확산 체제의 강화, 전염병 퇴치, 국제보건, 우주탐사, 사이버 공간의 이용, 재난 대처, 인도주의적 지원, 여권 신장, 유엔 평화유지활동 강화 등을 거론했다.

두 정상은 이어 “힘이나 강압에 의해 일방적인 현상 변경을 시도함으로써 주권과 영토적 주권과 영토적 통합성을 저해하는 국가의 행동들은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이 되고 있다”고 밝히고 “이 같은 위협들은 우리가 구축해온 많은 것들을 위협에 빠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두 정상은 특히 “해양안보를 포함한 이슈들에 대해 보다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해양 진출을 강화하는 중국을 적극적으로 견제하겠다는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두 정상은 이날 회견에서 중국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반대하지 않지만, 높은 운영기준과 투명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베 “전쟁 중 여성인권 종종 침해”

위안부 사과 끝내 없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8일(현지시간)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 문제와 관련, 사과는 하지 않은 채 “깊은 고통을 느낀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인신매매”(human trafficking) 피해자들이 받은 고통을 생각하면 깊은 고통을 느낀다”며 “이 점에서 역대 총리들과 다르지 않게 고노 담화를 계승하고 수정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워싱턴의 한 외교소식통은 “그동안 아베 정권은 ‘고노담화를 수정할 생각이 없다’ ‘새로운 담화를 발표하는 것을 생각한다’ ‘고노 담화를 전체적으로 계승한다’고 밝혔지만, 이번에는 아무런 조건 없이 고노 담화를 계승한다고 했다”며 “고노 담화와 관련한 지금까지의 발언과 비교할 때 가장 명료한 것으로 보여 주목한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그러나 여전히 위안부에 대한 공식 사과나 사죄의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아베 총리는 또 “전쟁 중에 여성의 인권이 종종 침해당해 왔다”고 말해 일본군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위안부 강제동원 문제를 “일반적인” 차원의 전쟁 중 여성 인권 침해와 동일시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으려 반발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월산동, 광전파크 빌라 “급매” 합니다

- 광주 월산동 110-18번지
- 5층 중 5층 19평
- 전망좋음, 2013년 신축
- 방 2, 화장실 1, 거실, 베란다
- 내부깨끗, 즉시 입주
- 신우 APT 105동 옆
- 식 보5백에 월 45만 가능
- 전세 8천만원 가능
- 대출 7천만원 가능
- 감정/시세 - 1억 2천만원 정도
- 매매 - 9천 4백만원

- 광주 월산동 110-18번지
- 5층 중 2층 34평
- 정남향, 2013년 신축
- 방 3, 화장실 2, 거실
- 첫 입주
- 신우 APT 105동 옆
- 식 보1천만에 월 65만 가능
- 전세 1억 4천만원 가능
- 대출 1억 1천만원 가능
- 감정/시세 - 2억원 정도
- 매매 - 1억 6천 4백만원

신우APT 제5동

경매 투자

▶ 특수비법 배우실 분
교육비 / 임정활동비
사무실 사용료 등
2200만원

▶ 단독 / 공동투자 하실 분
자본금 - 1억원 이상
수익률 - 연 20% 이상

(주) 오 천 경 매
H.P 010-3605-5000

경매 직전 부동산
매입 / 해결합니다.

문의.010-3605-5000